

제1회 전주 국제 그림책 도서전 5월 개최

시, 5월 3~31일까지 국내·외 유명 그림책 소개·초청 작가와의 만남 등 진행

전주시립도서관이 국내·외 유명 그림책을 만날 수 있는 전시관으로 변신한다.

전주시는 오는 5월 3일부터 31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과 금암도서관 등 시립도서관 일원에서 '제1회 전주 국제 그림책 도서전'을 개최한다.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한 국내 그림책 작가의 작품세계를 소개하고 해외 작가의 작품 속에 담겨진 가치와 배경을 조명하고자 기획된 이 도서전은 첫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한 달 동안 '그림책'을 주제로 한 전시, 공연,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들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외 그림책 작가의 작품을 테마로 한 전시관이 설치된다.

개막식과 함께 초청 작가와의 만남도 계획돼 있다.

작가와의 만남은 그간 쉽게 만날 수 없었던 해외 그림책의 원화와 작가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그림책을 읽었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암도서관에서는 K-그림책을 대표하는 다양한 우리나라의 그림책들을 만나볼 수 있다.

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그림책 작가를 초청해 원화와 출판도서를 전시하는 초대전과 국제 도서전 수상 그림책 및 해외 번역 수출도서 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그림책은 지난 2004년 '지하철은 달려온다(신동준)', '팔죽할법과 호랑이(윤미숙 그림, 조호

상 글)'가 그림책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볼로냐 라가치 상'을 처음 수상한 이후 다양한 국제 도서전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으며, 전 세계로 다양한 그림책이 번역 출간되면서 한국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시는 이번 도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한국지부), 그림책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의 그림책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성해 해외·국내 초청 작가 선정 및 행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제1회 전주 국제 그림책 도서전이 열리는 5월 한 달 동안 시립도서관 곳곳에서는 아이와 어른 모두를 사

로잡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열린다.

작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북콘서트'를 포함해 △그림책 1인극 △손인형극 △그림책 캐릭터 굿즈 만들기 등 그림책을 읽고, 보고, 만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 중이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그림책은 글과 그림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는 매체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그림책의 확장성과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전주 국제 그림책 도서전"을 통해 책이 낯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자동차 운행 줄이면 인센티브 드려요”

전주시, 내달 6일까지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전주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승용차와 승합차 운행을 줄이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운전자에게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가운데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휘발유, 경유, LPG 차량 소유자다. 친환경차량인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는 제외된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위해서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http://car.qpoint.or.kr>) 회원가입 후 휴대폰으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링크)로 접속을 해 차종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 사진,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대상자는 신청순으로 660여 명이다.

인센티브는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북

지환경국 맑은공기에너지과(063-281-2919)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최근 2년간의 전기·수도·가스 사용량과 현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할 경우 연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수도·가스 고객센터 혹은 사용자번호를 확인한 후 탄소포인트제 누리집(qpoint.or.kr)을 통해 가입하거나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4층)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운행을 줄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인센티브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민독서학교 수강생 모집

전주시가 시민들의 역량 개발과 자아실현을 돕기 위해 다양한 독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전주시민독서학교'를 운영한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이달 23일까지 '2022 전주시민독서학교' 수강생 38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올해로 25화제를 맞이한 전주시민독서학교는 이달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등 12개 시립도서관과 꿈밭장애인작은도서관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모집 과목은 △독서문화 △자녀교육 △인문교양 분야를 망라한 26개 과목으로, 4개월 과정과 7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월 5000원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그림책 인형극 △때깔 좋은 우리 미술사 △1일 글쓰기 △쉽게 하는 독서 모임 △노인인지 책놀이 지도사 △캘리그래피 △책놀이 등이다. 도서관의 새로운 변화에 맞춰 △과학고전강독 △서양철학사 △그림으로 읽는 세계 차 문화사 등 3개 과목이 새로 개설됐다.

이와 함께 시는 세대별 문화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40대 MZ세대를 위한 '책과 고요'와 '나만의 드로잉북 만들기', 50대 이상 신중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동양철학사'와 '손주에게 읽어주는 그림책' 등 세대별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윤상 기자

드론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낸다

전주시,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에 첨단 드론장비 15종 구축·드론기업·예비창업자 지원 추진

전주시가 지역 드론기업들을 위한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등 드론산업을 미래먹거리로 키우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일 전주첨단산업단지 내 드론산업혁신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드론기업들과 함께 준비중인 국가 공모사업 대응 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 시장은 또 드론산업혁신센터에 구축중인 AI관제센터 등 첨단드론장비를 직접 시연하며 드론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는 시가 지난 2020년부터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아 조성 중인 드론산업 거점 공간으로, 드론기업과 예비 창업자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첨단 드론장비 15종이 구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총 11종의 장비를 모두 구축하고, 본격적인 드론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시는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에 드론 관련 산·학·연 13개 기관을 유치하고, 입주 공간 및 공용장비를 활용한 기술 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함으로써 드론산업 집적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일 전주첨단산업단지 내 드론산업혁신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드론기업들과 함께 준비중인 국가 공모사업 대응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드론추구를 개발하고 보급해온 시는 그동안 축적해온 인적·물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최근 AI기반 임무용 드론의 상용화와 드론추구의 세계적 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등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와 드론추구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과 인재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 전주가 강점을 지닌 탄소·수소·ICT사업과 연계해 드론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재개

겨우내 멈춰 섰던 전주시 공영자전거가 다시 달린다.

전주시는 겨울철 추위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단했던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재개했다고 3일 밝혔다.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천주교 평화의전당 △전주향교 △오목대 △전주자연생태관 △송천동 전주천변 △삼천동 전주천변 △대성동 한옥마을주차장 △평화동 한비탕국체육센터 등 총 9곳으로, 총 284대의 자전거가 배치돼 있다.

올해부터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시민과 여행객이 자전거를 이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성동 한옥마을주차장과 평화동 한비탕국민체육센

터에 2곳이 추가로 운영된다.

시는 휴대폰 인증만으로 대여소 어디에서나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설했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공영자전거 보험에도 가입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1회(1일 대여 시간 내)에 10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하의 경우 보호자와 동반해야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휴무일인 월요일을 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일몰시간을 고려해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김윤상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